

부산시, 수출기업 6370곳 신규개척 지원

3대 전략, 9대 과제, 56개 사업
러시아 등 신북방 온라인 개척
아세안시장 연합마케팅 구성

부산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한 지역 수출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빠르고 강한 부산 수출회복'에 중점을 둔 수출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 9대 과제, 56개 사업을 추진해 총 6370개사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에 선방한 소비재와 같은 유망 수출 품목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그동안 주력했던 신남방 TV홈쇼핑,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소피, 라자다 등 해외 유명 온라인플랫폼 외에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16.8%) 등 신북방 지역을 타겟으로 한류 온라인 시장을 신규로 개척하기

로 했다. 또, 최근 2~3년 글로벌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수출물량 급감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주력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산업 고도화(친환경·저탄소)와 연계한 판로개척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온라인 상담회, 자동차부품온라인수출 대전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을 위해 부·울·경 주력산업을 모티브로 아세안시장 연합 마케팅을 구성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공동 도모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수출 현장과 소통으로 수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는 맞춤형 시스템 구축

우선 미·중·일·아세안·인도지역을 타겟으로 운영되던 유명 온라인플랫폼

활용 판로개척사업을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국 시장 언론홍보마케팅과 검색엔진 상위 랭킹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 온라인 마케팅의 외연 확장과 함께 내실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현장 마케팅 사업을 대신해 처음 시도한 권역별 화상 상담회는 수출실적과 참여바이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마케팅 행사 연계, 샘플 배송 등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상담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서부산 지역에 전국 최대규모의 상설 화상상담장을 개소해 운영한다.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연계 신규판로개척 지원

지역 주력산업의 친환경·디지털 경

제 신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상담회와 자동차부품 온라인 수출대전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중국 친환경 조선기자재 사절단과 지역 주력품목(기계류) 독일 진출 무역사절단을 추진한다.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유망품목을 발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인도 대형 온라인몰 화상상담회 ▲아세안국가 지식서비스 교류 화상상담회 ▲말레이시아 홍보지원 조건부 소비재납품 화상상담회 등을 시행해 수출주력품목 다변화에 집중 지원한다.

열악한 지역기업의 비대면 판로개척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지재권 확보 ▲3D모델링 및 360° 파노라마 VR제작 사업을 실시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조마크 설치한다. 보조마크는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 바닥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이다.

광양시, 장애인주차구역에 바닥보조마크 설치·운영

광양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빈발지역과 공동주택 130개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닥보조마크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해당 보조마크는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 바닥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다.

보조마크 내에 불법행위 과태료 금액 및 불법행위 유형, 앱을 통한 신고방법 등의 정보를 기재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제작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jiacecom@

경북도, 자금 100억 투입 리딩 벤처 300곳 키운다

5년간 기술·경쟁력 갖춘기업 발굴 R&D개발 등 2021 주요시책 시행

경상북도는 향후 5년간 핵심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리딩 벤처기업 300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측면에서 벤처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작년 4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벤처·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좀 더 힘을 보낼 계획이다. 도는 작년에 조성한 벤처펀드(800억원)를 활용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발굴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플레이 및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 6개사(티비에스파트너스, 와이엔

아치, 아이빌트, 비즈니스움, 스마트파머, 컴퍼니에이)등 민간 기관과의 협업으로 글로벌 직접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택트로 글로벌 각국 투자자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기관이 참여하여 도내 기업을 세계에 알리며 투자와 추가 수출계약을 이끌어 내는 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도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2021년 주요 시책으로는 ▲민간 전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단계 지원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개발 및 지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조성된 800억원의 벤처펀드를 활용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 ▲벤처기업 국내외 판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벤처 인프라 확대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830112@



소방학교 다목적 교육훈련센터 조감도.

내달 소방학교 다목적 교육훈련센터 착공

광주시, 160억 투입 내년 6월 준공

광주광역시 소방학교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재난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재난 대응 능력과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학교 다목적 교육훈련센터'를 다음달에 착공한다.

교육훈련센터는 소방학교 부지에 160여억원을 들여 연면적 4941㎡,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전철후 훈련이 가능한 다목적 종합 교육훈련시설로 증축하며 내년 6월 준공해 12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지상 4층 높이의 종합훈련장은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목표로 헬기

구조, 수직수평 하강훈련, 맨홀구조 등 11개의 훈련시설을 구축해 특수사고 대응과 격실 화재 훈련, 각종 소방시설 실습 등 다양한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지휘역량강화센터는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재난상황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현장지휘관, 재난관리 책임자의 지휘 능력을 강화한다.

전문구급 교육훈련센터에서는 각종 응급상황의 전문 실습실을 운영해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 능력과 외상환자, 중증환자 등 분야별 구급역량을 배양하게 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경기도, 경비원 등 대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나서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경비원, 청소원, 조리사 등 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반복작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으로 어깨 결림, 요통 등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해요인을 찾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요양재해자는 2018년 58.5%, 2019년 62.1%로 증가하고 있어 반복작업이나 무리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조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상주시, 예산 36억 투입 전기차·전기이륜차 보급

상주시가 지역 대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작년 대비 3배 증액 편성된 36억의 예산을 투자해 총 265대의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향후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대전환을 맞아 수소차와 더불어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기고 실현할 대표적인 시책이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충전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25기의 급속충전기 시설을 갖추게 돼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 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차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대 14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주(경북)=김홍식 기자 gi2136@

'도시청년 의성 살아가기' 참가자 모집

'도시청년 의성 살아가기'사업이 청년들의 호응 속에 2021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의성 살아가기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도시청년들이 지역주민과의 만남 및 농촌 체험을 통해 정착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에서 온 28명의 청년들이 '의성 살아가기-청춘구 행복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울대 출신부터 시드니에서 요리를 전공한 학생, 한국화

전공자까지 다양한 청년들이 모였다.

'의성 살아가기' 기간이 끝난 후에도 참여자 중 절반이 넘는 15명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 '청춘구 행복동' 운영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관내 기관단체에 취업하기도 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함께할 도시청년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2월 8일(월)~2월 21일(일)까지다.

/의성(경북)=김귀열 기자

전북, 친환경농업 육성에 554억 투자

전라북도가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 전략 20개 단위사업에 554억 원을 투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 소비처 확대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이라는 3가지 큰 틀을 설정했다.

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소비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0개 사업에 205억 원이 투자되는 소비처 확대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와 융복합 산업

화 전환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기농산물 복합서비스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도 도모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질비료 공급,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등 7개 사업에 342억 원이 지원된다. /전북=강성태 기자 ksd1008@